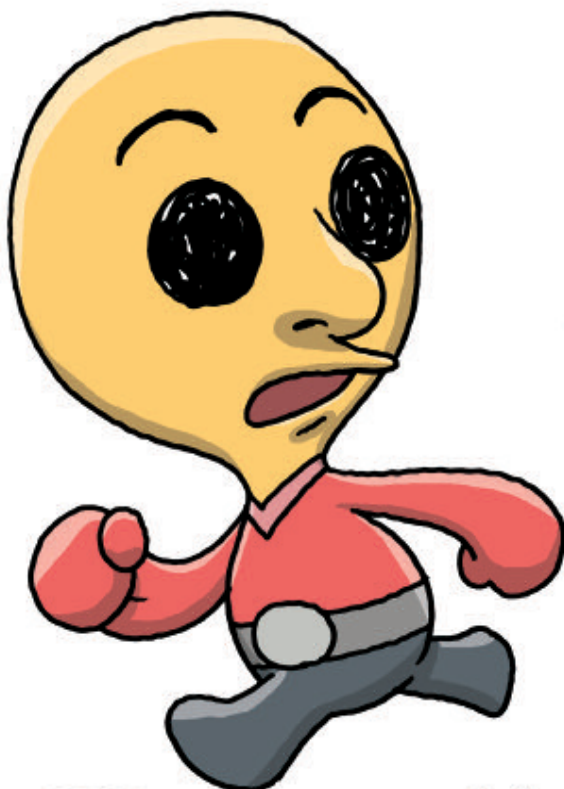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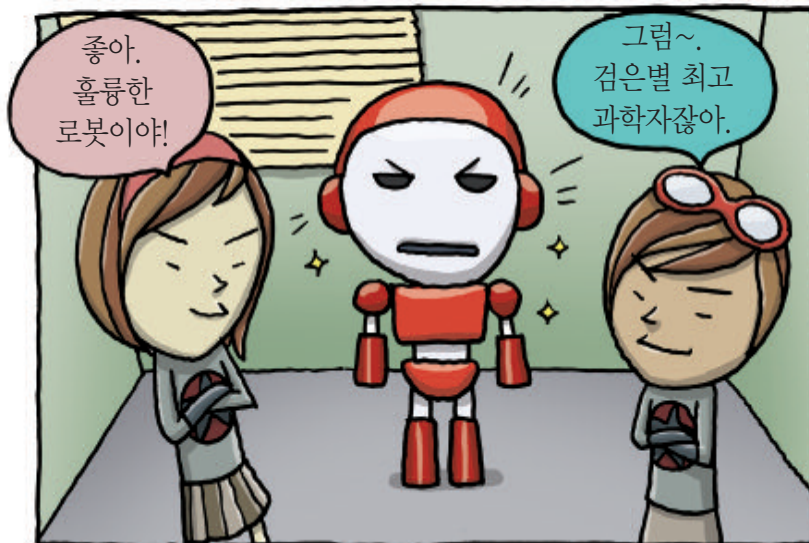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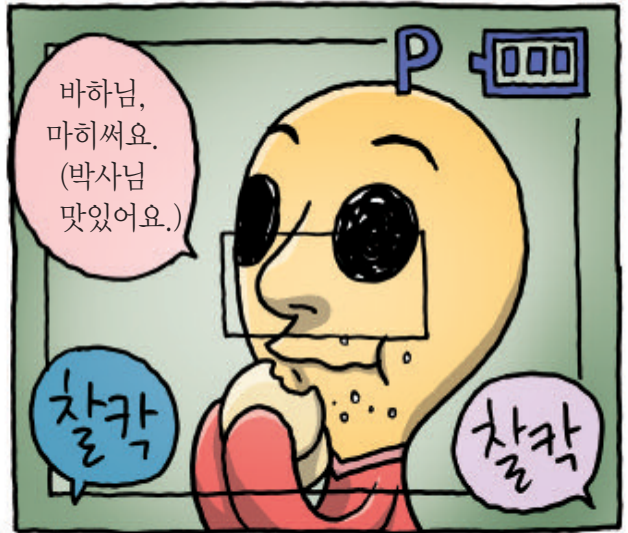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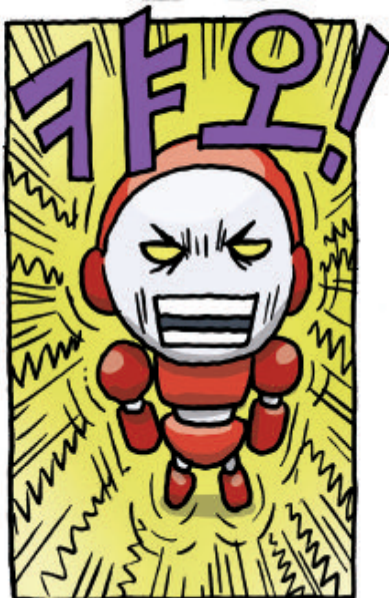
특명 13 스틸로 대 스틸로 下

글 윤신영 그림 김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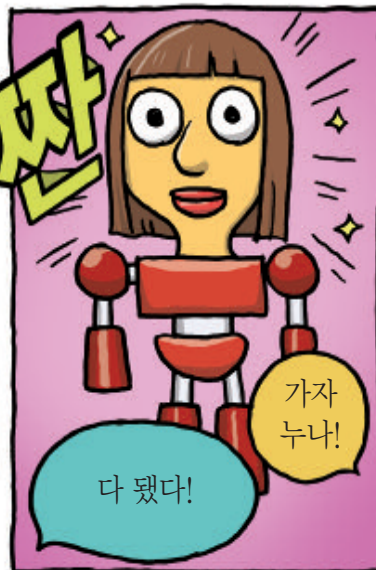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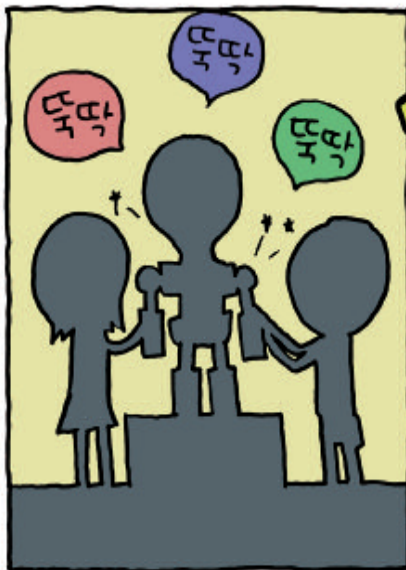


지난 줄거리 : 뽀아중의 동생 뿌이가 누나를 돕기 위해 지구로 날아온다. 두 남매는 KIST의 연구를 돕는 척하며 에너지메카닉스연구센터의 얼굴로봇 기술을 빼돌리기로 하고 검은별 최고 과학자 그레이스 박사의 지구인 로봇을 데려오는데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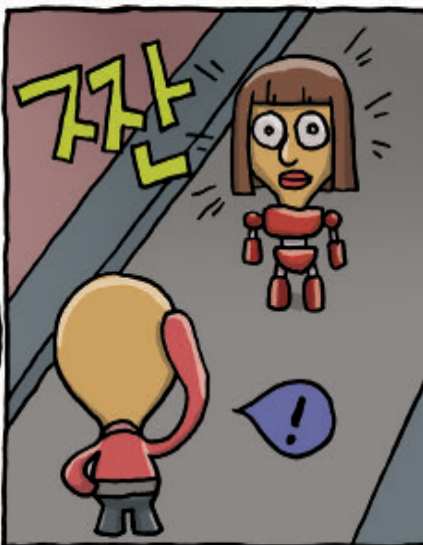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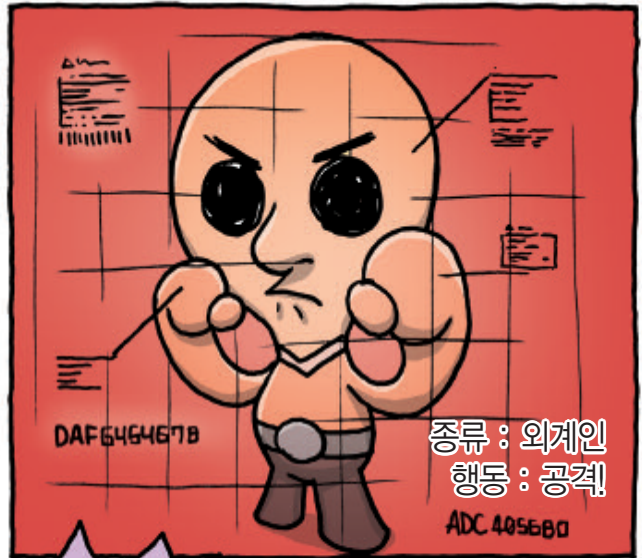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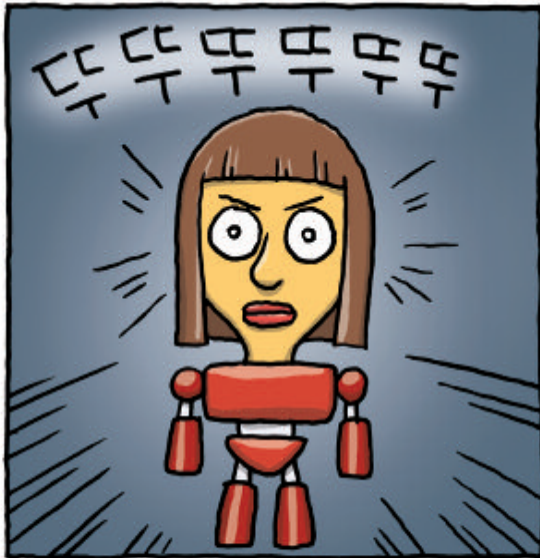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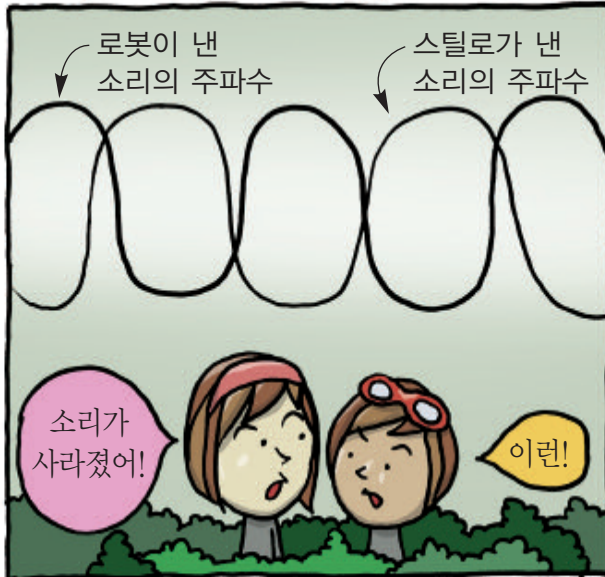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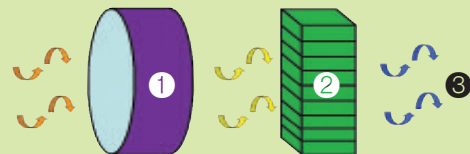




■ 에너지메카닉스연구센터의 제습 냉방 기술

손등 위에 물을 살짝 바르고 후~ 불면 손등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지요?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. 물이 액체였다가 기체로 변할 때 열이 필요하거든요. 그럼 이 원리를 응용하면 물만 이용해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에어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

※ 물을 증발시키면 정말 공기가 차가워질까? 증발로 물이 순식간에 어는 모습을 '어린이과학동아' 홈페이지(kids.dongascience.com)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하자.



- ① 제습 재료. 지금은 '실리카겔'이라는 물질을 쓰고 있지만 이대영 박사는 'SDP'라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. 이 물질은 자신의 무게보다 200배나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다.
- ② 건조해진 공기에 살짝 물을 뿌려 증발시킨다. 물이 증발하면서 공기가 차가워진다. 스키장의 눈 만드는 기계의 원리.
- ③ 보송보송하고 시원한 제습 냉방 에어컨 바람 완성!



올빼미의 정체는? 누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?

